

# 고씨동굴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건국대학교 부교수      홍 현 철  
김천전문대 전임강사      홍 충 렘

## 〈논문구성〉

- |              |            |
|--------------|------------|
| 1. 서언        | 3. 교통 및 관광 |
| 2. 인구 및 산업구조 | 3-1. 교통연계  |
| 2-1. 인구변화    | 3-2. 관광특성  |
| 2-2. 산업구조    | 4. 결론      |

## 1. 서언

영월군은 江原道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의 서사면인 영서지방에 속한다. 철도교통은 태백선과 영동선으로 연결되며 서울에서 3시간 30분거리에 있다. 영동고속도로로는 새말에서 장평·평창을 지나 영월에 이르게 되며 수도권에서 3시간 정도로 도달할 수 있다. 즉 영월은 중원권인 충청도지방과 수도권인 경기지방 그리고 동해안지역인 영동지방등의 결절지역에 해당되는 교통요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태백산맥 서사면의 산간오지로 산세가 수려하고 한적한 비경인 관계로 조선시대 단종의 유배지로 정해졌던 고장이다.

영월읍 남동쪽 8km지점의 남한강지역의 하식애에 위치하고 있는 고씨동굴은 강을 건너야만 동굴입구에 도달하는 불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강을 건너는 낭만적 기분도 함께 맛볼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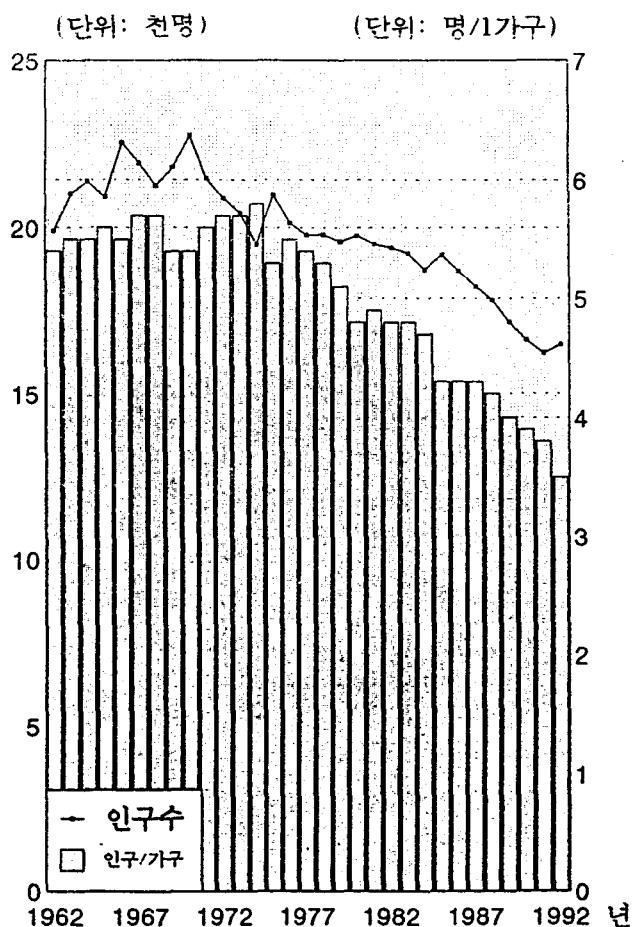
영월군 및 고씨동굴 주변지역의 인문사회 지리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인구 및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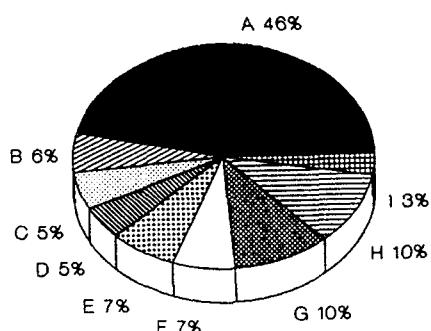
### 2-1. 인구

영월군은 1962년 108,566인에서 1967년의 125,416인으로 피크를 이룬 후 계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어 1992년 현재 58,783인이다. 1967년 이후 1992년 까지의 25년간의 연평균인구감소율은 -2.99%로, 계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性比를 보면 101.4로 남초현상이 나타나며, 가구당 인구는 1974년에 5.8인으로 피크를 이룬 이후로 계속 감소하여, 1990년 이후에는 4인 미만으로 떨어져 1992년 현재 3.5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전출인구가 많은 때문으로 해석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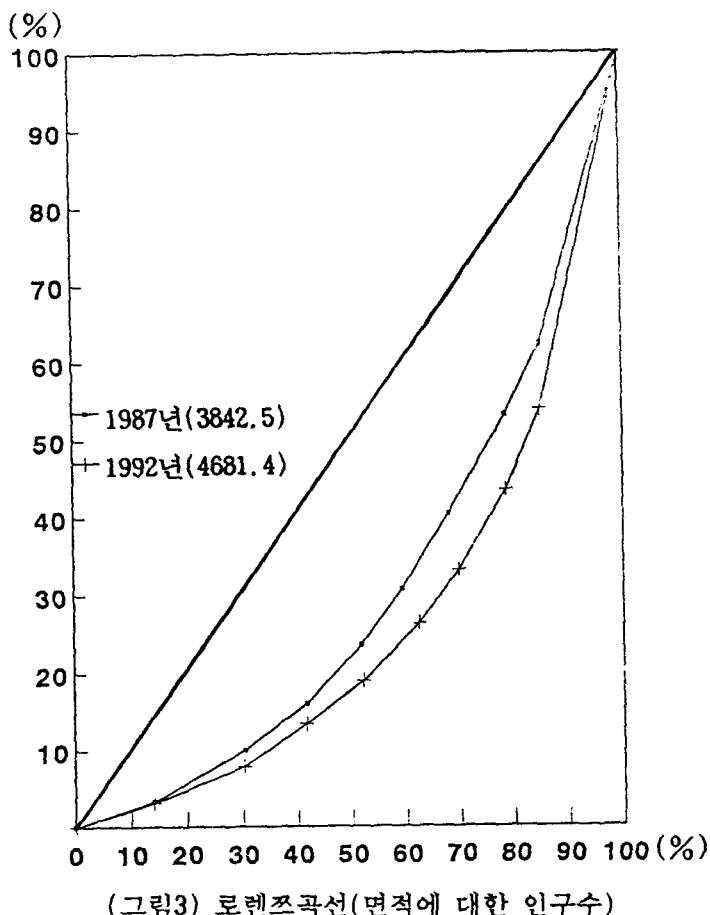


(그림 1) 영월군 인구추이(1962-1992)



(그림 2) 읍면별 인구분포(1992년)  
 A: 영월읍 B: 상동읍 C: 중동면 D: 하동면  
 E: 북면 F: 남면 G: 서면 H: 주천면 I: 수주면

읍면별 인구를 보면 영월군 총인구의 46.08%가 영월읍에 집중분포하고 있고 수주면은 3.13%로 가장 적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그림 2). 영월군은 이와 같이 읍면에 대한 인구의 분포가 불평등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면적에 대한 인구수의 불평등 정도를 로렌츠곡선을 통해 알아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3에서 보듯이 1987년의 로렌츠곡선 보다 1992년의 로렌츠곡선이 완전평등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근 5년동안에도 면적분포에 대한 인구분포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불평등 정도를 Gini지수로 나타내면, 1987년에는 3842.5 였던 것이 1992년에는 4681.4로 많아져 그 불평등의 심화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림3) 로렌츠곡선(면적에 대한 인구수)

전출입에 의한 인구이동을 보면 매년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도외로 부터의 전입 인구 보다 도외지역으로의 전출 인구가 2배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출입을 지역별로 볼 때, 영월읍과 상동읍에서 도외로의 이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산업

농가구수 및 농가인구수도 매년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1992년 현재 농가구는 5,579가구, 농가인구는 18,586명을 보이고 있다. 경지면적을 보면 총계 8,715ha중에서 논은 1,688ha로 19.37%에 불과하고 나머지 80.63%에 해당하는 7,027ha는 밭으로, 경지면적의 대부분이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가구당 경지면적은 1.55ha로 전국에 비해 낮은 경지면적을 갖고 있다.

식량작물을 보면 면적과 수량에 있어서는 미곡과 잡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채소류 중에서는 무우와 배추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특용작물로는 참깨와 둘깨가 주종을 이룬다. 축산으로는 한우, 돼지, 산양, 닭등을 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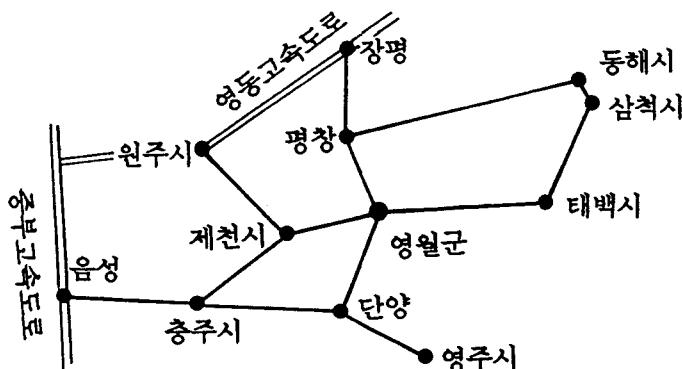
광구수는 매년 감소하여 1992년 현재 420개소 중 가행광구수는 143개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2차산업의 비중감소는 광산종업원수를 보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86년 5,188명에서 1992년 859명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광산물로는 석회석, 무연탄, 규석, 중석, 시멘트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석회석은 주로 서면과 주천면에서, 무연탄은 북면에서, 규석은 주천면에서, 시멘트는 서면에서 생산하고 있다.

## 3. 교통 및 관광

### 3-1. 교통

영월의 교통은 강원도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지역의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지역과 연결되는 주요한 교통요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 서울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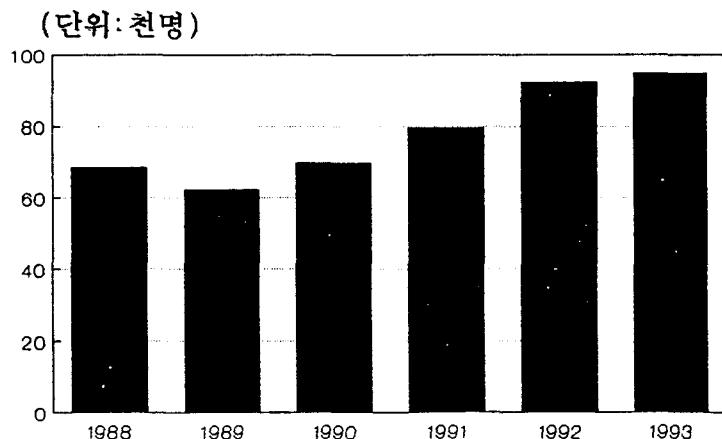
(그림 4) 영월주변의 위상적 네트워크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면 원주시-제천시나 장평-평창을 경유하여 접근가능하고, 충청도지역과는 중부고속도로의 음성을 경유하여 충주시-제천시, 충주시-단양을 경유하여 연결되어진다. 경상북도의 영주시에서 단양을 경유하여 영월시로 연결되어 진다. 또한 영동지방과는 태백시를 경유하거나 평창을 경유하면 동해시나 삼척시로 연결되어 지고 있어서 강원도 내륙지방의 교통 요지를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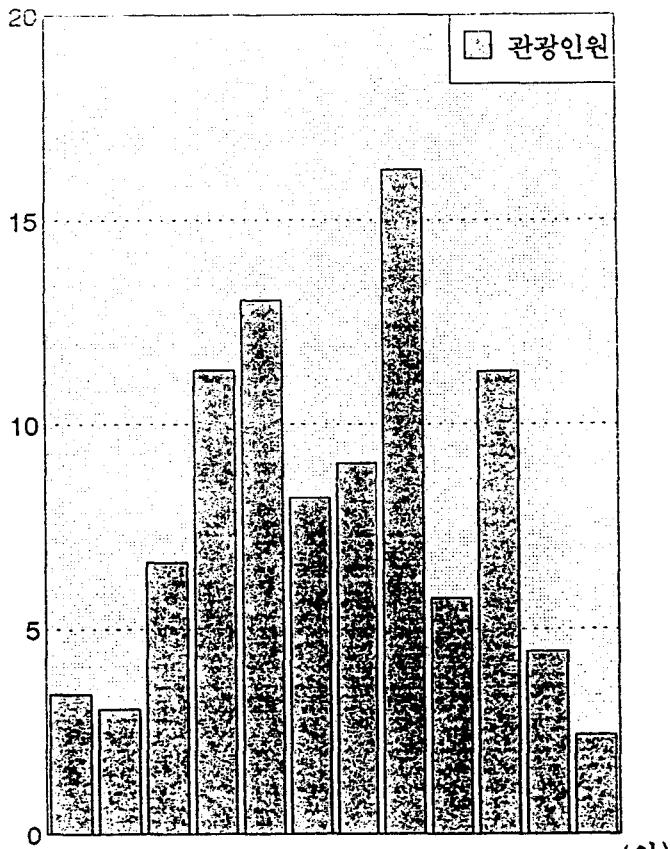
### 3-2. 관광

영월군에는 총 29점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41.4%에 이르는 12점이 영월읍에 분포하고 있다. 국가 지정문화재가 5점, 지방문화재가 24점이다.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보물이 1점, 사적이 1점, 천연기념물이 1점이다. 보물 제612호 징효대사 보인탑비, 사적 제196호 莊陵, 천연기념물로는 영월읍 하송1리의 은행나무와 고씨동굴을 들 수 있다.

고씨굴은 장릉과 함께 영월군의 주요 관광수입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993년도 영월군 관광지 관람인원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총인원 253,337명중에서, 장릉이 48.0%, 고씨굴이 37.5%, 청령포가 14.5%를 차지한다. 고씨굴의 관람인원의 연변화를 보면, 1989년 62,228명으로 한때 관람인원의 감소를 보였으나, 1990년 69,843명이후, 1993년 94,889명으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관람인원의 월별추이를 그림 6에서 보면, 8월에 피크를 이루고 4,5월과 10월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2월, 1월, 2월이 바텀기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고씨굴 관람인원의 연변화



(그림 6) 고씨굴 관람인원의 월별추이

#### 4. 결론

이상과 같이 고씨동굴의 주변지역인 영월군의 인문현상을 고찰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인구현상을 보면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한가구당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도외지역으로의 전출현상인 이촌향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로맨곡선의 변화로 부터 지역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군내 인구이동도 읍으로의 이주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산업구조는 농가 한가구당 경지면적이 적을 뿐아니라, 농가구수 및 농가인구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2차산업은 광구수의 감소와 더불어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 석회석과 무연탄 등의 광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다섯째, 교통 측면에서는 철도교통과 국도급이상의 도로발달상태로 보아 강원도내 교통 요지를 점하고 있다.

여섯째, 문화재등 관광자원의 분포가 주변군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다. 특히 고씨굴이 점하는 관광산업은 영월군의 주요 관광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참고 문헌>

- 영월군, 1993, 영월군통계연보.
- 統計廳, 1992,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 金炳文, 1978, “水安堡溫泉觀光地의勢力圈에關한地理學的研究”, 觀光學, 第2號,
- 朴石熙, 1983, “雪嶽山觀光資源의利用行態 및 需要에 관한研究”, 觀光學, 第7號, 33-63.
- 尹吉鎮, 1990, 國立公園觀光地에 대한認知와選好에 관한分析的研究, 建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喜演, 1984, “행락여행에 대한 중력모형의 적용 및 평가”, 國토계획, 19, 73-87.
- 林漢洙, 外5人, 1992, 觀光地理:韓國篇, 白山出版社.
- 洪始煥, 1990, “旌善畫岩洞窟의開發妥當性研究”, 洞窟, Vol. 22, No. 23, 1-37.
- 洪顯哲, 1992, “백룡동굴 주변의 인문 및 사회환경에 관한 연구”, 동굴, Vol. 31, No. 32, pp. 42-64.
- 洪顯哲·金日鳳, 1992, “觀光地에 대한接近性和 네트워크構造의季節變化: 忠清南道北部地域을 中心으로”, 觀光地理學, 2, 351-368.
- 洪顯哲·유영준·김일봉, 1993, “고수동굴의 교통 및 관광특성에 관한 연구”, 洞窟, Vol. 32, No. 33, pp. 47-62.
- 홍현철·정민채, 1993, 만장굴주변지역의 관광 및 교통특성, 洞窟, Vol. 35, No. 36, pp. 13-31.
- 奥野隆史, 1977, 計量地理學の基礎, 大明堂, 357.
- 奥野隆史·高森寛, 1976, 点と線の世界: ネットワーカ分析, 三共科學選書.
- 除野信道, 1975, 觀光社會經濟學, 古今書院, 154.
- 野本晃史, 1962, “觀光客流動圈の形態からみた觀光類型とその分布”, 人文地理, Vol. 14, No. 4.
- Archer, B. H. and Owen, C., 1971, "Toward Tourist Regional Multiplier." Regional Studies, 5, 289-294.
- Berge, C., 1958, Théorie des graphes et ses applications, Dunod, Paris (Doig, A. trans, 1962, Theory of Graphs and Its Applications, Methuen, London).
- König, D., 1936, Theorie der endlichen und unendlichen graphen, Akademische Verlag. M.B.H.
- Lavery, p., 1971, Recreational Geography, David and Charles LTD. 德九球雄, 小林望譯, 1977, レクリエーション地理學, 東洋書店.
- Shimbel, A., 1953, "Structural parameters of communication network" Bull. of Math. Biophys., 15, 501-507.
- Vickermann, R. W., 1974, "A demand model for leisure travel," Environment and Planning, 6, 65-77.
- Wilkinson, P. F., 1973, "The use of models in predicting the consumption of outdoor recre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5, 34-48.